

목 차

	빅데이터 동향	34
정책	- "화재 출동 '골든타임' 놓치지 않도록 '빅데이터'로 분석한다"	34
	- 'K-바이오 빅데이터' 가이드 나오는데...장비 국산화는 언제	35
	- 교차로 꼬리물기 감지한 AI, 빅데이터로 최적 신호주기 찾아내	36
	- 표현 힘든 만2세 이하 학대아동, 빅데이터로 찾아낸다	37
	- 여수시, 빅데이터 집중 활용 인구 유출 막는다	38
기업	- 신한카드, 우즈베키스탄 빅데이터 정책 수립 지원	39
	- 삼성카드, 빅데이터 지수 자체 개발...매월 정기적으로 공개	40
	- 피씨엔 "AI와 빅데이터로 인구감소 지역 사회문제 해결"	41

"화재 출동 '골든타임' 놓치지 않도록 '빅데이터'로 분석한다"

- 행정안전부, 5월 1일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해 '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모델'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
 -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것
- 행안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,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화·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
 - 화재 발생시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(7분) 내 현장 도착률은 2022년 기준 66% 수준으로, 그간 출동 지연 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음
 - 행안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, 출동유형별(화재·구급·구조) 지연 요인을 도출
 - 또한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해 5단계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 및 시각화하였고,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, 시간대별 교통정보,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도출해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
- 모델 개발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 및 소방차량 이동데이터,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, 행정안전부의 도로 주소,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
 -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,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 및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
- 행안부, 지난달 소방청과 모델개발 결과를 공유했으며 앞으로 소방청과 협업을 통해 다른 시·도에서도 소방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번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
 -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, "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"며 "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언급

출처 : 뉴스1, "화재 출동 '골든타임' 놓치지 않도록 '빅데이터'로 분석한다" (2024.5.1.)

'K-바이오 빅데이터' 가이드 나오는데...장비 국산화는 언제

-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산·학·연·병 전문가들이 모인 '바이오·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'는 기존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정책 방향을 아우르는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으로 이달 말 내용을 확정할 계획
 - 여기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'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' 등 단일 사업 체계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임
- 정부, 그간 바이오 데이터 관련 단일 사업은 있었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, 이를 보강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
 - 다만, 업계에선 유전체 분석 장비의 국산화 속도가 더딘 만큼 주체적인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선 국산 장비 신뢰도를 키워야 한단 지적이 있는 상황

〈 바이오·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 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) 〉

바이오·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

명칭	바이오·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
주요 내용	-산재된 데이터 연계 및 품질 제고, 고품질 데이터 활용 가치 창출 -안전성·편의성 높인 범부처 통합 바이오·헬스 데이터플랫폼 구축 운영

협의체 위원(24명)

- ▷정(7)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2)·보건복지부(1)·산업통상자원부(1)·개인정보보호위원회(1)·식품의약품안전처(1)·질병관리청(1)
- ▷산(4): 한국제약바이오협회(1)·지니너스(1)·카카오헬스케어(1)·나무아이씨티(1)
- ▷학(5): 한양대(1)·고려대(1)·이화여대(1)·KAIST(1)·서울대(1)
- ▷연(4): 한국화학연구원(1)·한국보건 의료정보원(1)·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1)·한국생명공학연구원(1)
- ▷병(4): 가톨릭대(1)·연세대(1)·삼성서울병원(1)·서울대병원(1)

- 국내 유전체 분석 장비 시장은 미국 일루미나와 중국 BGI(베이징유전체연구소)의 자회사 MGI가 나눠 갖고 있는 상황
 - 특히 수요가 높은 일루미나 장비 가격대는 1대 당 최소 약 7,000만 원·최고가 모델은 30억~50억 원 선으로,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외산 장비를 사들이는 것이 부담일 수 밖에 없음
- 업계 관계자, "시약도 해당 장비 기업에 호환되는 제품만 사용하게 돼 있다"며
 - "시약은 분석 때마다 소진돼 계속 구매해야 하고, 분석량에 따라 다르지만 시약값으로만 매달 3,000만 원씩 들어간다"고 언급

출처 : 머니투데이, 'K-바이오 빅데이터' 가이드 나오는데...장비 국산화는 언제 (2024.5.7.)

교차로 꼬리물기 감지한 AI, 빅데이터로 최적 신호주기 찾아내

- 서울시, 올 1월부터 동북권 주요 간선도로이자 꼬리물기로 인한 상습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노원구 태릉입구역 화랑로와 동일로, 노원로 등 주요 교차로 6곳에서 스마트 교차로를 시범 운영 중
 - ‘스마트 교차로’란 교차로의 교통량, 돌발 상황 등을 추출해 생성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신호를 산출하고 실시간으로 신호 시간을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
 - 이를 통해 운전자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신호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교통 체증 상황에 맞게 바뀐 신호 시간에 따라 운전할 수 있음

〈 스마트교차로 운영방식(출처: 서울시) 〉



- 최첨단 장비들이 차량 종류나 보행자 유무, 교통량, 신호 정보, 카메라 영상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며,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딥러닝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교차로별로 최적화된 신호 운영시간을 산출하는 데 이용됨
 - 최적 신호를 적용하면 차량의 신호 대기 시간은 줄고, 꼬리물기와 같은 돌발 상황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나 사고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
 - 스마트 교차로를 도입했을 때 교통 지체 감소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에 따라 지체도가 최소 6%에서 28% 가까이 줄어들었음
- 서울시 관계자, “오전 시간대에 최적 신호를 반영하면 교통 체증 지체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, 통행 속도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”고 설명

출처 : 동아일보, '교차로 꼬리물기 감지한 AI, 빅데이터로 최적 신호주기 찾아내 (2024.5.3.)

표현 힘든 만2세 이하 학대아동, 빅데이터로 찾아낸다

- 서울시, 현재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이용해 학대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 중이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만 2세 이하 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, 기획조사를 신설한다고 발표
 - 만 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
 - 시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이 구축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조사에 나서 가족유형별, 지역별 특징요인 등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할 계획
 - 이어 위기징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고,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

〈 자료사진 〉



- 현재 1년에 한 번씩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임시신생아번호로 기록돼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와 양육여부 조사도 1년에 두 번씩 실시 중
 - 아울러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'방문형 가족회복 사업'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, 비가해보호자,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 지원에 나설 예정

출처 : CBS노컷뉴스, 표현 힘든 만2세 이하 학대아동, 빅데이터로 찾아낸다 (2024.4.17.)

여수시, 빅데이터 집중 활용 인구 유출 막는다

- 여수시, 5월 16일 과학행정기반 인구정책 지원 지역데이터 분석 공모사업에 선정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인구 감소 원인 분석과 맞춤형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
- 여수시는 지역 경제간 생활인구와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특성 분석을 추진할 계획

< 여수시청 전경(출처: 여수시) >



- 여수시는 △최근 3년간의 전입 전출 △1인 가구 경제 특성 △광역단위 경제활동 인구 통계 △관내 및 관외에서 시로 와서 생활하는 생활 인구 등의 분석을 통해 과학적 행정에 기반한 인구감소 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
- 여수시는 순천과 광양 등 지역 간의 전입과 전출 인구 소득 기반 데이터 구축을 통해 ‘지역 간의 인구이동 원인분석’과 ‘경제적 요인이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’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또한 인구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인구추이 예측과 생활인구 분석, 가맹점 입지분석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기업들의 여수 진출 유도과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
- 여수시 관계자, “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구정책 발굴과 정책실현의 기회를 마련했다”며 “앞으로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밝힘

출처 : 전남일보, 여수시, 빅데이터 집중 활용 인구 유출 막는다 (2024.5.20.)

신한카드, 우즈베키스탄 빅데이터 정책 수립 지원

- 신한카드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재정부·법무부·중앙은행 등 정책실무자와 현지전문가로 구성된 연수단을 초청해 ‘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사업 노하우 공유 및 정책 수립 지원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발표
 -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(이하 KDI)이 주관하는 해외 지식 공유 프로그램(이하 KSP)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, 우즈베키스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됨
-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KDI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협력대상국의 경제·사회 발전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‘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’으로, 97개국의 1600여개 과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
 - 신한카드는 2022년 말레이시아, 2023년 헝가리 대상 사업에 이어 3년 연속 참여
- 신한카드, 세미나에서 업계 1위사로서 신한카드가 지닌 빅데이터 및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의 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동향을 설명
 - 또한 신한카드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공공분야의 정책 지원데이터 사업 사례와 성과를 공유
- 신한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핀테크 사업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
 - 2021년 국내 최초 민간데이터댐으로 출범한 ‘그랜데이터(GranData)’ 사업은 올해 유통·가전·생활 데이터를 추가할 예정이며, 매력적인 타 업종 데이터 기관과의 결합 상품을 개발해 국내 데이터 산업을 선도한다는 방침
- 신한카드 관계자, “기획재정부와 KDI가 추진하는 KSP 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외 공공기관에 신한카드 데이터를 소개하고 글로벌 데이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”이라며
 - “앞으로도 신한카드는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 사업 경험을 토대로 공공·민간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데이터 비즈니스 선도기업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”이라고 언급

출처 : 팝콘뉴스, 모비젠, 빅데이터 기반으로 무역보험 서비스 혁신 나선다 (2024.4.30.)

삼성카드, 빅데이터 지수 자체 개발...매월 정기적으로 공개

- 삼성카드, 카드사 최초로 소비 관련 빅데이터 지수를 개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

- 이는 데이터 기업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며, 삼성카드가 개발한 빅데이터 지수는 연구나 공공 정책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
- 카드업계에 따르면, 삼성카드는 '24년 4월 말 데이터 사업 플랫폼 'BLUE Data Lab'(블루데이터 랩)을 오픈하고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지수 'BLUE인덱스'(블루인덱스) 4종을 카드사 최초로 선보임
- 블루인덱스는 삼성카드가 자사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지수화한 수치이며, 삼성카드가 공개한 4종의 블루인덱스는 △지역별 온라인 소비지수 △지역별 외국인 소비지수 △지역별 생활인구지수 △지역별 소상공인 통계로 구성

〈 삼성카드가 자체 개발한 소비 관련 빅데이터 지수 'BLUE인덱스' 4종 〉

BLUE인덱스	정의	활용
지역별 온라인 소비지수	-소비액 대비 온라인 소비 비중	-온라인 접근성 확대 정책 수립 -온·오프라인 사업체 입지 선정
지역별 외국인 소비지수	-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소비 강도	-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 -지역별 상권 특징 분석
지역별 생활인구지수	-다른 지역에서 직장·여가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인구 비중	-지자체별 소비활성화 정책 수립 -관광시설 경제 효과 분석
지역별 소상공인 통계	-개인사업자 지역·업종별 특징 등	-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

- 삼성카드가 블루인덱스를 개발한 궁극적인 이유는, 의미있는 빅데이터 지수를 외부에 공개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데이터 기업으로서 삼성카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, 나아가 데이터 사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됨
- 삼성카드뿐만 아니라 신한카드·KB국민카드 등 국내 상위권 카드사는 데이터 사업을 향후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
- 삼성카드 관계자, "블루인덱스가 민간 기업의 사업성 검토, 공공기관 연구, 지자체 정책 개발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게 1회성 공개에 그치지 않고 매월 업데이트해 최신화된 수치를 제공할 계획"이라고 밝힘

출처 : 머니투데이, 삼성카드, 빅데이터 지수 자체 개발...매월 정기적으로 공개 (2024.5.9.)

피씨엔 "AI와 빅데이터로 인구감소 지역 사회문제 해결"

- 피씨엔(PCN), 37.5억 규모 '데이터 기반 인구감소지역 사회문제 해결 지원 기술개발 과제' 수주**
 - 피씨엔 이금탁 전무, "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AI기반 '사회문제 해결'이라는 특수성을 갖는 시뮬레이션 도구는 우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다"고 설명
 - 또한, "최근 지자체들이 인구감소로 다양한 사회문제(주택 노후화 및 빈집증가, 문화시설 부족, 노인 고령화, 실업률 증가 등)를 겪고 있고,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"고 설명

〈 사회문제 유형별 인구감소 지역 실증 대상 선정표 〉

사회문제 유형별 인구감소 지역 실증 대상 선정



- 이번 과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 유용할 전망**
 - 이 전무, "과제 제안 초기부터 지자체 담당자들과 모임을 갖고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과제 방향을 함께 도출했다"고 밝힘

출처 : ZDNET KOREA, 피씨엔 "AI와 빅데이터로 인구감소 지역 사회문제 해결" (2024.5.2.)